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어느덧 9월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의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 보여주신 그 열렬한 믿음과 삶을 다시금 되새깁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기쁨에 설레는 때이기도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제는 공장과 일터, 길거리에서 그리고 농촌과 어촌에서도 외국인들을 마주치는 일은 전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숨 쉬며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조금은 의심스럽고 냉랭해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와 꼭 같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할 수는 없는가요?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는, 이른바 토박이 혹은 본토민입니까? 죽을 때까지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많은 분들이 이주의 역사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부모를 떠나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으며, 모세와 이스라엘이 파라오 폭정을 피해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또한 헤로데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배려는 우리 신앙인에게 온정으로 베푸는 호의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신앙이 탄생한 자리가 그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탈출 22,20) ...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22) 이스라엘은 ‘약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율법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비록 국적, 민족, 종교, 문화 그리고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다는 사실로 차별하지 않고 그분들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하춘수 레오 신부 | 회원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55,6-9
화 답 송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 독 서	필리 1,20ㄷ-24,27ㄱ
복 음	마태 20,1-16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회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웃을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움을 배척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자주 발견됩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이주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 주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주하여 먼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며 그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훌륭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강제 이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의 주제는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whether to migrate or to stay)입니다. 사회 안에서 삶의 자리를 잃고 내쫓겨야만 하는 많은 이를 위하여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예수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마태 2,13 참조). 이 성가정은 자유롭게 이주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전쟁, 환경, 정치, 종교, 가난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제9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평화의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모국에서 인간의 품위를 지니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강제 이주'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안전하여야 할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내몰리는 이들은 거의 언제나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주하여 오는 이들을, 우리도 공동의 책임을 느끼며 따듯이 맞아들이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국가 사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3년 전 제106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환대, 보호, 증진, 통합에 관하여 이야기 하시면서 자신의 나라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주민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쫓기거나 일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은 단순히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적 폭력을 피하여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였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회 안에 특별히 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인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 압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게 되는 작은 희망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당 차원과 교구 차원의 시노드 경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쇄신과 새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교황께서 강조하시는 '함께 가는' 시노드 정신은 우리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청과 배려로 다양성 안에서 많은 일치의 열매를 맺는 시노드 교회처럼, 이주민과 난민이 우리와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같은 한 자녀로서, 서로 친교와 연대를 통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함께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하여 기대도 하지만 두려움도 가지듯이, 이 땅을 밟는 많은 이주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은총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루카 7,41-43 참조)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참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3년 9월 24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고현본당 소년 레지오 '정의의 거울 Pr.' 창단식



고현본당(주임: 여인석 베드로 신부)은 9월 2일 소년 레지오 정의의 거울 Pr. 창단식을 진행하였다. 정의의 거울 Pr.은 고현1 희망의 문 Cu. 소속으로 16명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인 간부 2명으로 총 1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소년 레지오이다. 이날 창단식은 레지오 회합을 시작으로 창단 축하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창단식에는 본당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보좌 신부, 본당 수도자 등 거제 1 Co. 고현 1,2 Cu. 간부들과 많은 단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다. 더불어 정의의 거울 Pr. 소년 단원들이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성모님의 용감한 군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첫째가 된 행복한 일꾼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저는 품팔이꾼, 현대적 언어로 말하자면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새벽에 일거리 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일찍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피약벌 속에 일하고 있는데 때때로 다른 일꾼들이 더 오곤 했습니다.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도 새로운 일꾼이 더 왔습니다. 밀린 일을 처리하려는 주인의 뜻이 있는가 봅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받으러 모여있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며, 후하신 주인님께서 저에게는 더 많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다리던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인님을 향해 내민 저의 손안에 쥐어진 것은 한 데나리온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저에게 훨씬 늦게 온 다른 이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시다니, 이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불평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주인님께서 저에게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며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첫째로 온 제가 어찌하여 꼴찌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꼴찌로 온 그가 어찌하여 첫째가 되는 것입니까?

이날 들었던 주인님의 나무람은 잊혀지지 않아서 가슴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거리 시장을 나갔는데 저를 불러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기다리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리다 품삯을 못 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을 때 그 포도밭 주인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 일을 시키신 후, 겨우 한 시간 일한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듯 후하게 주시는 건지... 저는 그분 앞에 감사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기다리며 서성거리던 저의 애타는 수고로움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눈가가 젖어 들었습니다. 주인님을 향한 저의 감사하는 마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절절해져서 이제 저는 감히 첫째가 되었습니다. 주인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저는 첫째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일찍 일하러 왔던 그날에 제가 꼴찌였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제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고, 더 받지 못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인님의 후한 처사를 받았던 이들을 향한 저의 시기심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포도원의 일용직 일꾼입니다. 이제 저는 품삯으로 얼마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을 품삯은 늘 똑같이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성실하게 일하려 합니다. 일이 주어지지 않아 일거리 시장에 진 종일 서서 기다릴 때의 불안과 걱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뿐더러, 제가 감사하며 사랑하는 주인님이 계시는 포도밭에서 일하다니 행복할 뿐입니다.

행복한 제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다가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나무람을 호되게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다가 또 그와 같은 나무람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품삯을 따져보고, 스승을 따르면 받게 될 보상에 관심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다른 이들에게 후하거나 너그럽지 못한 채 시기와 불의를 일삼는다면 분명히 이런 나무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산청본당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산청본당(주임: 이진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천상은총의 어머니 Pr.(단장: 진선이 미카엘라)은 9월 7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천상은총의 어머니 Pr.은 1984년 9월 8일 설립되었다. 이진수 신부는 기념 주회에 참석하여 “레지오가 오늘 2,000차 주회합까지 달려온 것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단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레지오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단원들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성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2,000차 주회합을 계기로 성모님처럼 살아가고 활동하며 기도하여 3,000차, 5,000차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쁨과 친교 가득한 의령성당

이준호 라파엘

방금 비가 멎은 성당 뜰에 들어설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 푸른 잔디는 푸근하고 정겹다. 사제관 앞 종려나무와 넓은 앞의 파초 주변에는 설핏 남국의 바람이 살랑거린다. 성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의 목소리가 씩씩하다. 강론 중 퀴즈를 듣자마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 정답을 말하자 신자들의 웃음꽃이 활짝 핀다. 최근 귀촌한 가정이 넷이나 있어 유아 수가 늘었다. 전 사목회장인 이인규 베드로의 말이다. 삼대가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인다. 십여 명의 어린아이들로 인해 토요일 미사의 평균연령이 낮아졌다. 의령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많다. 주일날 스타렉스 승합차 두 대를 모는 봉사자는 모두 열 명 정도. 칠곡공소를 비롯하여 화정, 가례, 용덕, 정곡의 노인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른다. 그러는 몇 년 사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다.

고령층이 많아도 활동적인 본당

정철현 바오로 주임 신부는 고령층이 많아도 본당은 활동적이고 열정이 넘친다고 한다. 성경공부반도 연령대별로 수요일과 토요일 두 번 열린다. 참가자는 사오십 명에 이른다. '여정 첫걸음'이란 이름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다. 바오로 신부는 신자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은 없다고 한다. 그 말에서 사목 방침을 가늠할 수 있다. 깊은 믿음, 희망, 사랑을 지니고 영성적 성장과 기쁨과 친교 봉사를 실천하는 행복한 의령본당 공동체가 그것이다. 본당의 날은 격년제로 성지순례와 본당 자체 행사를 하는데, 작년 가을에는 구한선 타대로 성지순례와 고성 야유회를 병행하여 기쁜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자모회원들도 주부로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겸하며 활동적인 본당을 이어가고 있다.

본당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꽃 피우며

연령회장인 최종환 토마스가 이야기를 이었다. 의령에 복음의 씨앗이 싹튼 것은 1890년 대부터였으며, 1966년에 함안공소에서 의령본당으로 승격했다. 최 회장은 40년사에 이어 50년사까지 편집 책임자였다.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한 사진과 자료들이 단연 눈에 띄었다. 그렇지만 의령성당 50년 화보를 편집할 때, 화보 내용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편중하여 아쉬움이 컸다. 2016년 이후의 소사들을 여전히 모으고 정리하며 60년사를 향해 가고 있다. 교직 경력 42년에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학교에서 익숙하게 해 오던 것이라 본당역사 기록 편찬도 용이하다. 두 차례의 사목회장에 이어 연도와 장례지도사 기본 교육 강사로서 교구 일을 도왔다. 본당의 연령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신앙의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길 바랄 뿐이다. 옛 공소 사진 속의 까만 교복을 입은 소년이 자신이라는 최 회장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며 귀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정호순 데레사 또한 본당의 산증인으로 초창기를 회고했다. 당시 성당 일을 보는 수녀 한 명과 의령여중·고에 수업 지원을 하던 수녀 두 명이 있었다. 학교 수녀들은 교원자격증이 없어서, 몇 년 뒤 학교 일을 그만두고 본원으로 돌아갔다. 당장 수녀가 하던 성당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다. 당시 정 데레사는 텅 빈 수녀원에서 한 달만 살기로 하고 모든 일을 이어받았다. 그 한 달이 어느덧 12년으로 늘어났다. 성당의 제대일과 식판 일까지 도맡았다. 신영도 루카 사목회장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정 데레사의 심부름을 도운 적이 있다고 회상한다. 정호순의 남편도 입교하여 사목회장으로 세 차례나 봉사하였다.

어려운 시절을 신심으로 이겨내

이인규 베드로에 의하면, 의령성당 자리는 만석꾼 집안 출신인 이우식의 생가터였다. 그는 어릴 적에 이우식의 손자와 한동네에서 자랐다고 했다. 부잣집 터의 기운을 받아 세워진 의령성당이지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사제관의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던 70~80년대를 거쳤다. 주일헌금 3만 원을 못 채워 전현직 회장 간에 사비로 해결했던 때를 그는 떠올렸다. 사제가 신자들을 일대일로 면담하며 교무금 증액을 호소하던 시절도 있었다. 우선 많이 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제관으로 다시 오라며 종용했다. 부족함은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지 않겠냐며 서로 위로했다. 십여 년 전까지도 사제관은 단열재가 안 들어가 겨울이면 추웠다. 여러 차례의 사공으로 상황은 나아졌다. 코로나 전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교무금을 꼬박꼬박 내는 신자들이 있었다. 때 묻지 않은 신심 때문이라고들 입을 모았다. 만석꾼 생가터는 믿음으로 가득 찬 신앙의 땅으로 거듭났다.

화음으로 하나 되려는 의령본당

신영도 루카 회장은 코로나 이전 신자들의 90퍼센트는 돌아왔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냉담자들이 많고, 교구 내 많은 신심 단체가 위축된 점을 상기한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편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한다. 그리고 의령본당이라면 성가대를 빠뜨릴 수 없단다. 20여 명의 단원이 내는 화음이 수준급인데, 여느 시골 성당의 성가대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단다. 주임 신부도 다녀본 본당 중에서 제일가는 성가대라고 맞장구쳤다. 이미 2019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교구 합창단과 공연하였다. 내년에는 성가대 음악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설립 50주년 행사 당시 이해인 수녀 초청 강의를 열었을 때는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자리가 부족해서 성당 마당에도 의자를 준비할 정도였다. 의령성당 신자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본당을 떠올리며, 고령화도 사라지고 냉담자들도 돌아오는 광경을 그리며 함께 손을 모은다.





지역할 선종 사제

김두호(알로이시오) 몬시뇰
1993년 9월 26일

교구/본당

성직자 묘지성묘

일시: 9월 25일(월)

장소: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교안발표

일시: 9월 26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페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일정, 장소 변경) 안내

일시: 10월 8일(주일) 10:30

장소: 장재동성당(10월만 일정 변경)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기타

2023년 성모술술통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시: 매일 둘째주 금~주일(2박 3일)

10월 13일~15일/ 11월 10일~12일/ 12월 8일~10일

장소: 성모술술통마을/ 문의: 010·3209·39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4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월 14일(토)~12월 14일(목)까지, 일반우

편 또는 전자우편(cafi@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늘품직업재활센터 ‘늘품은견과’ 추석 선물기획전

늘품직업재활센터는 창원시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프리미엄세트: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 피칸, 마

카다미아, 호두 6통 49,000원/ ▶선물형: 기본세트 1박

스+비단보자기 포장 27,000원, 기본세트 2박스+비단

보자기 포장 49,000원/ ▶늘품은견과 플

러스: 기본세트 1박스+답례품 1통+지퍼

가방 30,000원/ ▶늘품은견과 실속형:

기본세트 1박스 22,000원

문의 및 전화 주문: 055·247·5190,

010·2568·5190



성체 신심 세미나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와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교구 성령쇄신봉사회에서 성체신심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23일(월)~12월 11일(월) 매(수) 월요일 19:00~22:00-8주간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이병주(시몬) 신부/ 이창준(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황미란(로즈마리) 수녀/ 마진우(요셉) 신부/

장훈철(바오로) 신부/ 박상운(토마스) 신부/

황병석(파스칼) 신부/ 최봉근(디도) 선교사

문의: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10·5247·990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구	9월 25일(월) 19:00	중앙동성당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	양태현 그레고리오 신부(생림선교부담 주임)		010·5247·9900
청년	매(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월 1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 11월 4일 출발 아말피&시칠리아 트레킹 순례 10박 11일-690만원

■ 11월 27일 출발 이스라엘&요르단 순례 10박 11일-49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디 크림 100ml,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바디 크림 10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지금여기 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 창원 용지호수앞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음의 성찰록

김순화 베로니카 시인/ 가톨릭문인회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이상하다고 여기던 찰나 그가 나에게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참 슬펐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더 마음이 갔고, 그를 많이 믿고 의지하였기에 배신감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였지만, 그에게 진심을 다했던 시간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다.

첫째 날에는 눈물이 났다.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며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또 다시 사람을 믿고 배신을 당하는 내 삶이 서글펐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추스르며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때문에 나의 감정과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둘째 날에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세상의 말과 시선에서 나를 자유롭게 놔두었다. 셋째 날에는 타인은 내가 아니므로 언제든 떠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떠나가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누가 오더라도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에 평정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넷째 날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이상 웃지 않는 내가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상대에 대한 미움을 반복하며 내 마음속에 그의 존재를 계속 남겨두는 것만 같아서, 결국 그에 대한 미운 감정마저도 비워 버렸다. 다섯째 날에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비우니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때야 비로소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헤아려 보게 되었다. 그의 언행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마음이 올라왔다. 여섯째 날에는 성당에 앉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불쑥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독한 길을 다 어떻게 감내하며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이 예수님의 가슴 아픈 생애 비해 너무 사소한 것만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는 계명을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번민에 휩싸인다. 어쩌면 앞으로도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반복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며 다시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내보려고 노력해 본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매일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또 우리의 삶을 ‘사랑’이라 정의 내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사울의 등장(1사무 9,1-10,27)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여전히 벤야민 지파의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에서 우리가 만날 인물은 사울인데, 그는 벤야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그의 집은 기브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기브아는 한 레위인의 소실을 집단 강간하여 죽게 한 만행이 일어났던 곳(판관 19장 참조)이며, 사울이 임금이 되어 22년간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울은 힘센 용사인 키스의 아들로 키가 크고 잘 생긴 젊은이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암나귀들이 없어지자 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선견자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그대와 그대 집안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벤야민 지파 사람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보잘

것없는 씨족 출신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묻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벤야민의 첼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들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아들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전해줄 것이며,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이 그에게 빵 두 덩이를 주면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브아 엘로힘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텐데 그들은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할 것이며, 사울에게도 주님의 영이 들이닥쳐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판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이 모두 일어나면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하며, 길갈로 내려가 이레 동안 그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바친 후 사울이 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울이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도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일은 오직 사무엘과 사울만이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장 17-27절은 사울이 미츠파의 집회에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선출된 사건을 서술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사무 8,22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하느님을 배척하고 임금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미츠파에 모이게 한 후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파와 씨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서 제비뽑기를 하였고, 이때 벤야민 지파의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하자 백성은 “임금님 만세”로 환호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갔고,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이 사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랴?” 하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11장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사적으로, 또 미츠파 집회에서 공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를 임금으로 선택하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은 하느님의 선택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졌던 인물일까요? 또 그런 확신은 어떤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할까요?



예언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e
출처: 굿뉴스good news